

KOSDAQ | 자본재

# 유일로보틱스 (388720)

## 로봇 산업 루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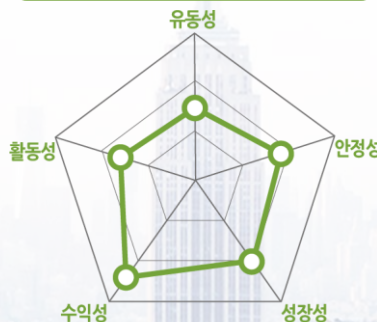
### 체크포인트

- 유일로보틱스는 자동화시스템과 각종 로봇을 주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 매출 비중은 자동화시스템 65%, 로봇 30%, 기타(스마트팩토리 등) 5%로 구분
-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달러에서 2030년 80억달러로 연평균 33% 성장 예상. 스마트팩토리용, 군사용, 의료용, 서비스용 등으로 로봇 수요는 확장 중
-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45억원, -20억원으로 추정(전년 대비 매출액 -1.4%, 영업이익 적자전환). 2023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10억원(+18.8% YoY), 8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추정. 매출 성장의 근거는 1) 자동화시스템 매출 회복과 2) 협동로봇 위주 로봇 매출 증가 기대 때문. 2024년부터는 신규 3공장 가동으로 실적 점프 기대

###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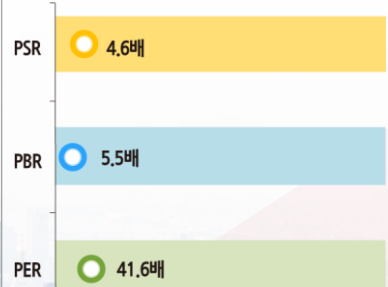


### 재무지표



주: 2021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1년 기준, PBR은 3Q22 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 유일로보틱스 (38872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정은 jeongeunkim@kirs.or.kr

KOSDAQ  
자본재

## 유일로보틱스는 로봇과 자동화시스템 전문기업

유일로보틱스는 자동화시스템과 각종 로봇을 주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 매출 비중은 자동화 시스템 65%, 로봇 30%, 기타(스마트팩토리 등) 5%로 구분

## 협동로봇 시장은 고성장 중이고 로봇 시장 응용처는 지속 확장 중

협동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달러에서 2030년 80억달러로 연평균 33% 성장 예상. 스마트 팩토리용, 군사용, 의료용, 서비스용 등으로 로봇 수요는 확장 중

## 유일로보틱스 투자포인트

1) 로봇 산업 고성장의 수혜, 2) 협동로봇 사업 확대 기대, 3) 자동화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부문은 각각 안정적 성장 가능, 4) 향후 Capa. 확대로 규모의 경제 기대

## 2022년 성장통 이후 2023년은 준비의 시기. 점프는 2024년부터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45억원, -20억원으로 추정(전년 대비 매출액 -1.4%, 영업이익 적자전환). 2023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10억원(+18.8% YoY), 8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추정. 매출 성장의 근거는 1) 자동화시스템 매출이 회복되고, 2) 협동로봇 위주로 로봇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기 때문. 2024년부터는 신규 3공장 가동으로 실적 점프 기대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억원)	288	350	345	410	710
YoY(%)	16.2	21.5	-1.4	18.8	73.2
영업이익(억원)	27	32	-20	8	40
OP 마진(%)	9.4	9.1	-5.8	2.0	5.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5	39	-8	16	51
EPS(원)	459	647	-102	186	594
YoY(%)	-21.4	40.9	적전	흑전	218.8
PER(배)	0.0	0.0	N/A	138.9	43.6
PSR(배)	0.0	0.0	5.0	5.4	3.1
EV/EBITDA(배)	2.7	1.7	N/A	88.5	38.0
PBR(배)	0.0	0.0	4.5	5.2	4.4
ROE(%)	33.2	26.0	-2.7	3.9	11.0
배당수익률(%)	N/A	N/A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2/6)	25,900원
52주 최고가	36,950원
52주 최저가	15,250원
KOSDAQ (2/6)	761.33p
자본금	32억원
시가총액	2,222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5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46억원
외국인지분율	0.31%
주요주주	김동현 외 3인 48.65%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4.3	-17.6	
상대주가	3.5	-10.0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1 유일로보틱스는 로봇과 자동화시스템 전문기업

유일로보틱스는 2011년 유일시스템이란 사명으로 설립

유일로보틱스는 자동화시스템과 각종 로봇을 주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동사는 2011년 '유일시스템' 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동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021년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로봇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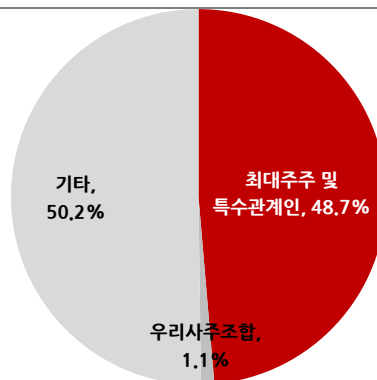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일로보틱스 설립자는 김동헌 대표이사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동헌 외 3인으로, 지분 48.7%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헌 대표이사는 고려대 산업공학 석사 출신으로 유도편스(주) 영업본부장(이사)를 역임하고 동사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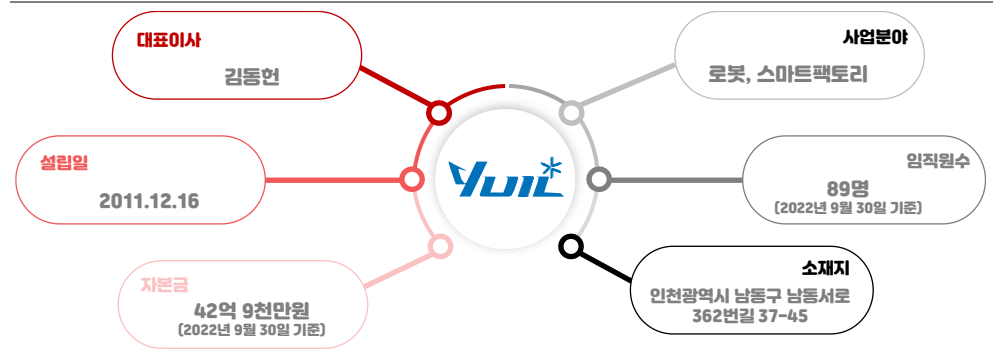
동사는 2011년 설립 이후 김동헌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 중이다. 참고로 2022년 3월 신규 상장에 따른 신규모집에 따라 최대주주 김동헌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변동(60.07% → 44.57%)된 바 있다.

#### 주주 구성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회사 개요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

매출 비중

동사 매출 비중은 자동화시스템 65%, 로봇 30%, 기타(스마트팩토리 등) 5%로 이루어져 있다(2022년 연간 연결 기준 예상). 구체적으로 동사 주요 사업/제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제품별 설명

1)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시스템은 제조 현장에 적용된다. 금형온도조절기, 스팀광택시스템, 칠러, 재습건조기 및 해당 시스템을 돕는 스마트기기(사출주변기기) 등을 동사가 제작, 판매한다.

2) 로봇

동사는 크게 3종류의 로봇을 제조/판매한다(직교로봇, 협동로봇, 다관절로봇). 2022년 기준으로 동사는 로봇 매출 중 직교로봇 비중이 70% 이상이나, 2023년부터는 직교로봇의 비중은 50%대로 감소하고 협동로봇과 다관절로봇의 비중이 4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교로봇:** 직교로봇은 직선으로만 구동되는 로봇을 말한다. 공정 자동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며 다관절로봇이 필요치 않은 컴팩트한 작업에 이용된다.

**협동로봇:** 협동로봇은 인간과 로봇의 공유 작업공간에서 인간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로봇으로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쉬운 작업 교시 기능을 갖추어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없이도 직접 혹은 그래픽 기반의 입력으로 로봇에게 작업 명령이 가능하다.

**다관절로봇:** 다관절로봇은 모터를 사용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여러 개의 관절들이 조합된 로봇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철강, 식품 등의 산업 분야에 폭넓게 사용된다. 산업 및 공장 자동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기타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련과 각종 A/S 관련 매출이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동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구축해 주는 활동이다.

사업 내용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3 고객은 전 산업분야 누적 1,600여개 고객 확보, 글로벌 거점도 보유 중

#### 1,600여개 고객 확보

동사는 누적 1,600여개 고객을 통해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했다. 즉 동사 고객사는 자동차/이차전지분야는 KMS테크, 노바텍, 제이티 등 1,200개사, 가전/모바일분야는 인탑스, 모베이스, 이렌텍, 세코닉스 등 200개사, 화장품분야는 연우, 팜텍코리아 등 40개사, 기타 LS엠트론, 이엠텍, 우진프라임 등 160개사에 이른다.

#### 분야별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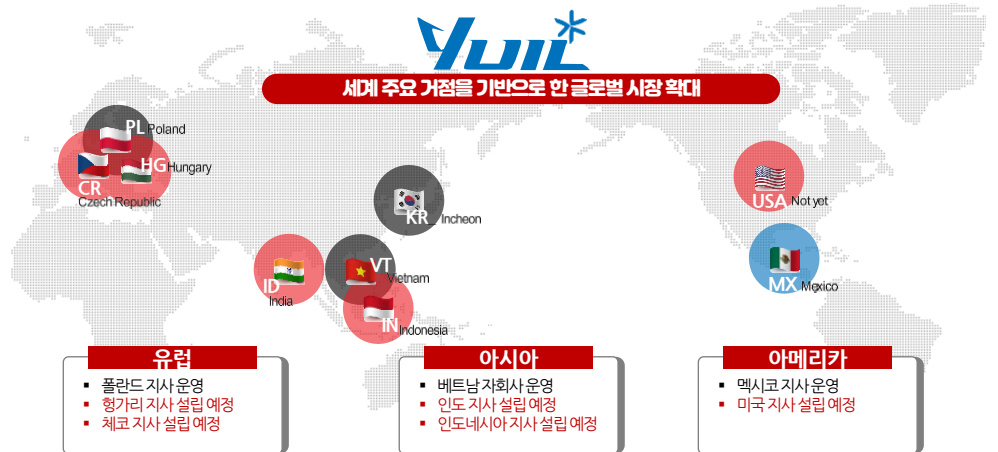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해외 지사, 자회사 운영

동사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각지에 지사 및 자회사를 운영 또는 설립 중이다. 이로써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은 확립했다고 보인다. 참고로 수출 비중은 17%이다(3Q22 누적기준).

#### 글로벌 거점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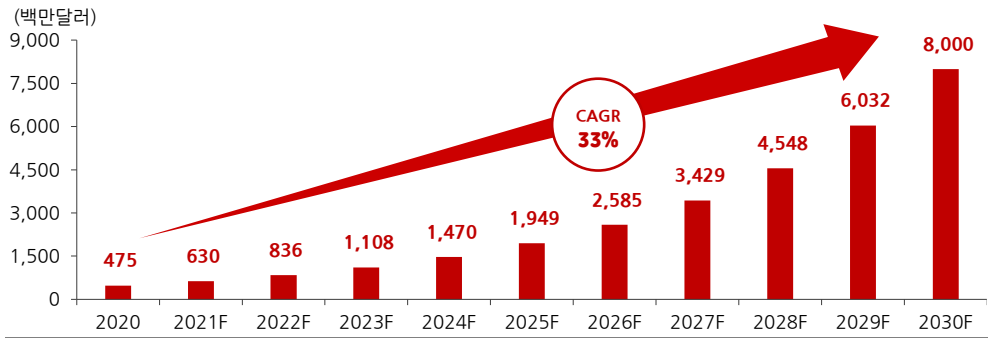
### 1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은 고성장 중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 고성장**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 매출액 추이 및 전망은 아래와 같다. 2020년 4.8억달러에서 2030년 80억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한국무역협회 전망). 연평균 성장률은 33%로 고성장이 전망된다.

협동로봇이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이 사람과는 독립된 공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과 대조되는 점이다. 협동 로봇은 통상 산업용 로봇보다 느리지만 동작이 정교하고, 작업자/작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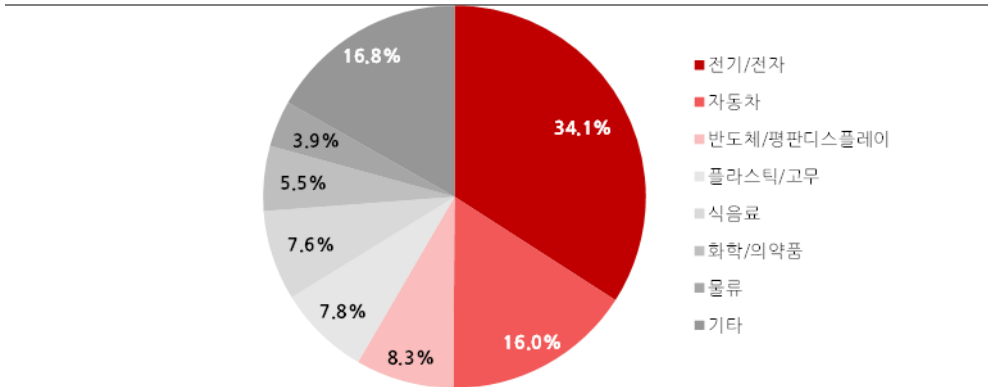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Statista, ABI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2 로봇 시장의 응용처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

**제조업 공장에서 로봇 수요는 증가세**

로봇은 초기에는 산업용으로 수요를 늘려왔다. 자동차, IT분야 등 제조업 공장에서 로봇은 로봇 수요의 상당부분을 지금도 맡고 있다.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지향하는 스마트팩토리에서 여전히 산업용 로봇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 로봇의 응용처별 활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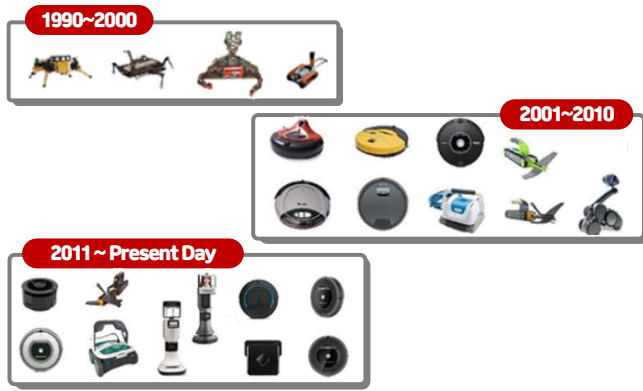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nteract Analysi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19년 매출액 기준

**물류 분야 로봇 수요 증가세**

물류 분야에서의 로봇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많은 로봇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며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아마존은 2022년 8월, 17억달러(약 2조 3,000억원)에 아이로봇을 인수하며 로봇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특히 물류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이로봇 시기별 제품군**



자료: 아이로봇,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아이로봇 실적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1,093	1,214	1,430	1,565
매출총이익	555	544	670	550
영업이익	106	87	146	-1
세전이익	109	99	188	28
순이익	88	85	147	30

자료: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방산기업들, 군용 로봇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군사용 로봇은 전통적으로 로봇 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군용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사족 보행 로봇 뿐 아니라 군인이 착용할 수 있는 엑소슈트(웨어러블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군용 로봇 시장이 2030년 4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는 만큼, 방산기업들은 로봇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트렌드다.

**웨어러블 로봇 착용 모습**



자료: 조선비즈, LIG넥스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의료용 로봇 산업, 로봇 수요의 메인 분야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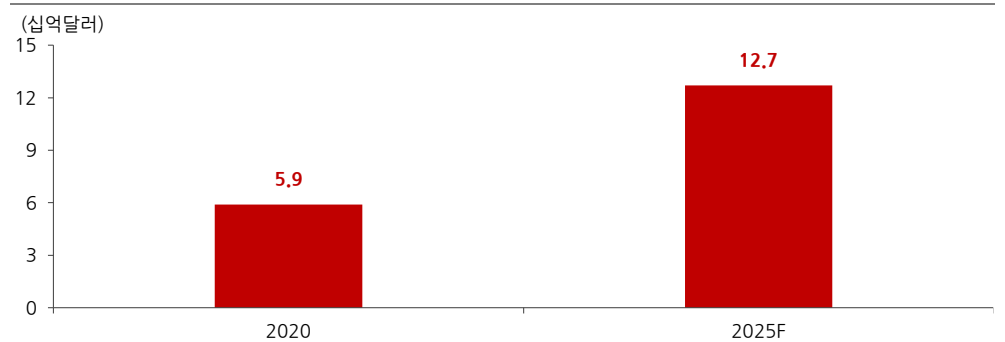
의료용 로봇은 이미 로봇 수요의 메인 분야 중 하나다. 시장조사기관 Value The Market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은 2020년 5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로봇기술 혁신이 수술, 연구, 치료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확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술용 로봇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은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 제조기업으로, 전세계 병의원에 수술용 로봇을 납품 중이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1995년 설립 이래 전세계 최소침습수술 기술과 로봇 수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었다. 인튜이티브의 로봇 수술 시스템의 등장으로 최소한의 부위만 절개한 뒤 정밀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술 후 흉터 감소, 합병증 발생률 감소, 회복 시간 단축 등 수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현재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da Vinci) 로봇 수술 시스템은 전세계 69개 국가, 약 6,700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전망



자료: Value The Marke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수술 로봇 다빈치를 활용하는 의료진



자료: 의학신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 로봇 사업 진행 예정

삼성전자도 올해부터는 의료용 로봇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상용화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자사의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을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권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의료보조 로봇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다양한 로봇 사업을 펼치기 시작할 전망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CES 2020’에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GEMS Hip’을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초 코스닥 상장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발행예정주식수 194만주, 발행금액 590억원).

삼성전자 로봇 'GEMS Hip'



자료: 이투데이, 삼성전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F&B 분야에서 로봇 대중화 중

F&B(음식료) 로봇 분야는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협동 로봇이 커피 등 음료, 피자, 치킨 등 음식의 제조에 이용되고, 음식 서빙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주문한 음식을 로봇이 가지고 테이블 앞까지 온다거나, 대형 쇼펍센터/전시장 등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이제는 낯선 경험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월간 로봇기술 등 언론에 따르면, F&B 분야의 서비스 로봇 시장이 최근 로봇업계의 핵심으로 부상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아래 2가지이다.

첫째는 요소기술의 진보이다.

201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용 인터페이스 장비로 공개했던 키넥트(Kinect)가 로봇 연구자들에게는 비용에 있어 효율적으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사실은 요소기술 발전이 서비스 로봇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니즈가 부합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로봇 분야는 인력이나 인프라, 대내외적인 이미지 등 여러 측면에서 협소한 산업 구조였다. 대중들은 자동차나 조선, 반도체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로봇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산업보다 공장 과학물의 범주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8년 '로봇산업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2011년 1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내 로봇팀이 '로봇산업과(現기계로봇과)'로 승격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 대중들에게 로봇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실제 서비스 로봇 기업들이 제품을 팔아

야 하는 수요처에서는 로봇 기술에 대중들은 막연하게만 느꼈던 시기였다. 당시 로봇 공급사와 각 산업별 수요기업을 묶어 분과별로 운영했던 '로봇융합포럼'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은 이같은 구조를 상당 부분 바꿔 놓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여러 수요 시장에서 역으로 로봇 기술에 대한 접근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로봇이 해주는 서비스에 대중들의 거부감이 줄고 오히려 선호하는 현상마저 생겼다.

**성수동 루덴스파트너스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뉴로메카의 협동로봇이 요리하는 모습**



자료: 로봇기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 부각**

이렇듯, 로봇은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폭을 넓히고 있고, 미래에는 추가적인 응용처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성장성 측면에서 로봇 산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심은 코로나 팬데믹 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CES 2023 로봇 부문  
혁신상에서 국내 기업들 돋보여**

얼마전 성료된 'CES 2023'에서도 로봇 산업은 여전히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고무적인 것은 CES 2023 로봇 부문 혁신상 수상기업 5개 중 한국 기업이 3개를 받았다는 점이다. IT TIMES 등 언론에 발표된 해당 3개 기업과 제품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에바, 충전 자율주행 로봇 제작**

**1. 에바(EVAR)**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율주행 로봇 '파키'(Parky)를 제작한 에바(EVAR)가 수상했다.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의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충전 로봇 파키의 내부에는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3개의 센서를 통해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며 안전하게 이동한다. 에바는 삼성전자 스피노프 스타트업이다. 사용자 누구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라이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봇 제작을 포함해, 모바일 앱 커스터마이징, 웹 & 서버 관리 서비스, 충전 기기 관리 & 제어, 사용자 관리 & 제어 등 EV 충전 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바의 자율주행 로봇 '파키'



자료: IT TIMES, EVAR,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바이오통코리아, 세포치료제 전달 시스템으로 수상**

**2. 바이오통코리아(BIOT Korea)**

새로운 세포치료제 전달 시스템 '스텝 셀 네비게이터'를 제작한 바이오통코리아가 수상했다. 스텝 셀 네비게이터(Stem Cell Navigator)는 분자 기능성 물질이나 줄기세포 등의 바이오 의약품을 마이크로 크기의 지지체에 탑재한 뒤 전자기장 유도 시스템으로 질한 목표 부위에 정확히 이동시키는 제품이다. 바이오통코리아는 미국 바이오기업인 바이오통(BIOT)의 투자를 받은 한미합작투자 법인으로, 전남대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의 기술 지원으로 스텝 셀 네비게이터를 개발했다.

바이오통코리아의 '스텝 셀 네비게이터'



자료: IT TIMES, 바이오통코리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아모레퍼시픽, 맞춤형 메이크업 스마트 제조 시스템으로 수상**

**3.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

맞춤형 메이크업 스마트 제조 시스템 솔루션 '톤워크(Tonework)'를 제작한 아모레퍼시픽이 수상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팔 기반으로 구동되는 톤워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정밀하게 얼굴의 색상을 측정하고, 로봇 팔을 활용해 맞춤형 파운데이션/쿠션/립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안면인식 기술과 색채학 연구를 적용해 최적의 맞춤 걸리를 제안해줄 수 있다.

## 아모레퍼시픽의 '튼워크'



자료: ITTIMES, 아모레퍼시픽,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테슬라도 로봇 사업을 준비

테슬라는 2022년 9월말 AI 데이를 통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선보였다. 옵티머스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반도체가 적용되고 총 8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다. 시속 8킬로미터(km)로 이동하며 최대 20kg의 물체를 운반하고 최대 68kg의 물건을 들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2023년말까지 옵티머스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생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선진국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인지, 활발히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명확하다는 방증이라 판단한다.

## 테슬라 옵티머스 주요 스펙

키	5 ft 8 in (173cm)
무게	160 lb (73 kg)
적재량	45 lb (20 kg)
이동 속도	5 mph (8kph)
데드리프트	150 lbs (68 kg)
구동장치 수(Actuators)	28
Bot brain	TESLA SOC

자료: 테슬라, 언론취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로봇 산업 고성장의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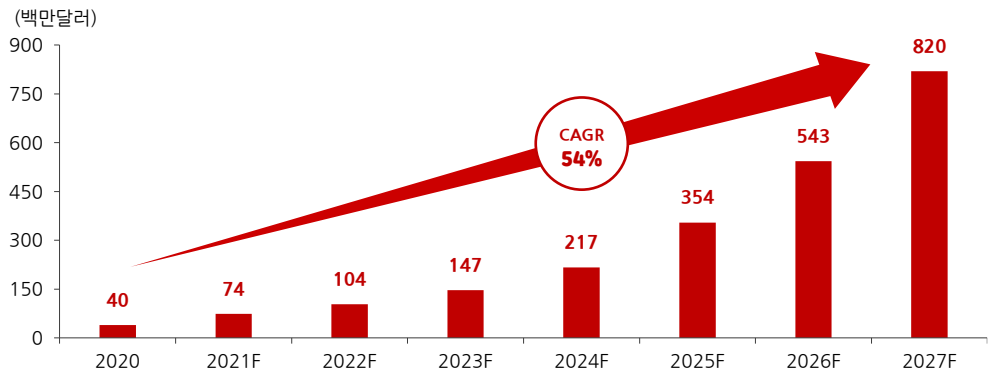
협동 로봇 국내 시장  
고성장으로 수혜 가능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고성장이 전망된다. 동사는 아직 수출 매출이 크지 않으므로(3Q22 누적기준 수출 비중 약 17%), 국내 시장을 일단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 협동로봇 시장은 2020년 0.4억달러에서 2027년 8.2억달러로 고성장이 기대된다. 동사는 이런 고성장하는 국내 로봇 시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국내 협동로봇 시장은 약 6~7개사(유니버설로봇, TM,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등)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데 기업들 각각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일로보틱스는 F&B(음식, 음료) 로봇과 자동화시스템에 있어 타사대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정부에서도 로봇 및 첨단 스마트공장 구축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유일로보틱스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과제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삼보에이엔티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 및 AI를 이용한 불량 검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협동로봇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2021),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협동로봇 사업 확대 기대**

2017년부터 동사는  
로봇 사업을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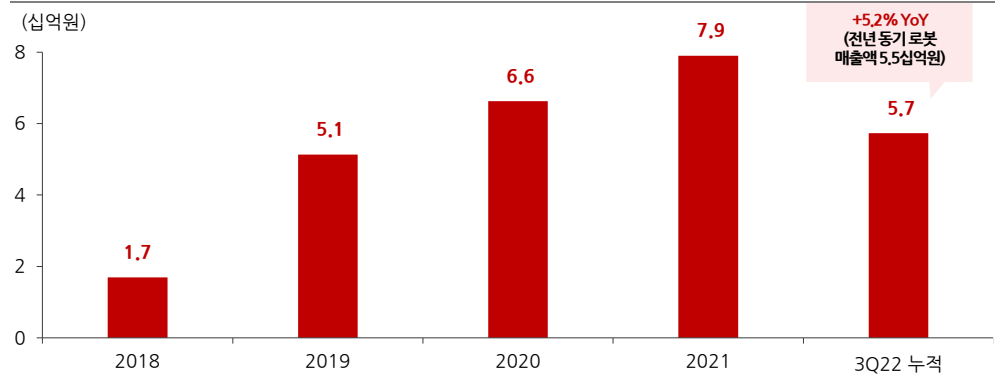
유일로보틱스의 과거 사명이 유일시스템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유일로보틱스는 본래 자동화시스템을 영위하는 회사였다.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시기는 2017년으로, 경쟁사 대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직교로봇, 협동로봇, 다관절로봇 등 로봇 풀 라인업을 보유하게 되었다.

기존 자동화시스템 사업에서 로봇 사업으로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8년 약 17억원에 불과했던 로봇 관련 매출 금액이 2021년 79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67.2%를 달성하며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로봇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도 고무적인데, 이는 2018년 7.6%에서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2.8%까지 확대되었으며, 2022년 온기 기준으로는 약 30%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유일로보틱스가 단기간에 로봇 풀 라인업을 갖췄음에도, 로봇 제조 핵심 기술인 제진 제어기술(취출 위치에서 빠른 시간에 진동을 감쇠하여 정지하는 기술), 가감속 제어기술(직교로봇이 가반하중을 싣고 고속으로 가동함으로써 기구적으로 가장 최적의 형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클라우드에 각 로봇들을 연결하여 연결된 로봇들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관리하는 기술)을 모두 확보하여 품질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유일로보틱스의 로봇 라인업 중 가장 큰 성장을 보일 라인업은 협동로봇으로 판단된다. 최근 로봇 산업 내에서 신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푸드테크인데,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선제적으로 푸드테크 시장을 타깃으로 한 R&D를 진행해 협동로봇을 개발해왔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에이스로보테크와 사업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로봇 시장은 개화되는 시장만큼 선제적인 레퍼런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이러한 사업 제휴를 바탕으로 2022년 ‘천안 로슬랭’에 치킨 조리용 협동로봇(‘EC-66 모델’)을, ‘김스클럽 목동점’에 튀김 조리용 로봇인 ‘링코봇 EC시리즈’를 납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제휴를 체결했던 에이스로보테크에 올해 1월 푸드테크용 협동로봇 EC-66 2차 납품을 진행하였고, 3차 납품은 2023년 3월까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사는 치킨이나 튀김 조리용 협동로봇 외에, 커피를 제조해주는 로봇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협동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성장 중인 국내/외 푸드테크 협동로봇 시장에 기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관련 매출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유일로보틱스 연도별 로봇 매출액 증가 추이**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3 자동화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부문은 각각 안정적 성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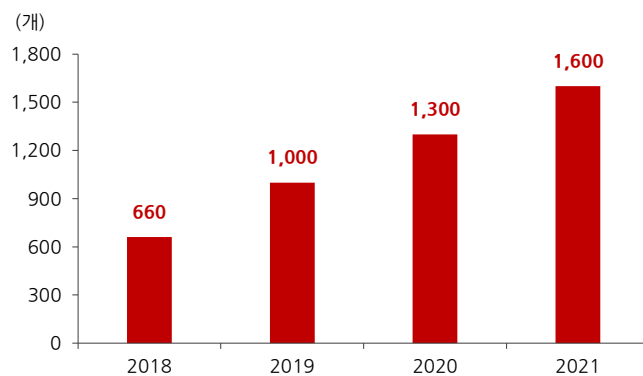
동사는 로봇과 자동화시스템  
두 분야 모두 제품군 보유,  
고객에 토탈 솔루션 공급 가능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직교로봇, 협동로봇, 다관절로봇 등 제조업에 필요한 로봇 라인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조업 자동화시스템 기술을 갖춘 국내 유일의 회사로 판단된다. 통상 로봇 회사의 경우 로봇 제조나 로봇 플랫폼 서비스만 제품군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회사의 경우 자동화 소프트웨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일반적인 회사들과는 달리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로봇과 자동화시스템 두 분야 모두에 제품군을 보유하여 산업용 관련 고객에게 토탈 솔루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2021년말 기준으로 동사가 누적으로 확보한 고객사가 1,600여 곳으로, 최근까지 약 100여개의 고객사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로봇과 자동화시스템 두 분야 모두에 제품군을 보유한 유일로보틱스는 기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 확장 기회가 있다. 즉, 기존에 자동화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공장에는 그 시스템과 가장 잘 호환되는 산업용 로봇 제품군 및 기타 스마트 기기들을, 기존에 산업용 로봇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공장에는 그 로봇과 가장 잘 호환되는 자동화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사는 기존의 공장 내 라인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품군을 설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산업용 고객사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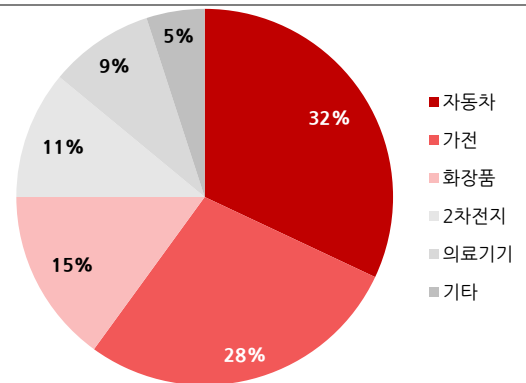
또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객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확보된 고객사들이 다양한 산업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전방산업의 투자 사이클에 실적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양한 산업 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소재한 6곳의 영업소 및 A/S 지점(경인, 수원, 천안, 대구, 광주, 부산)을 바탕으로 구축한 촘촘한 영업망과 고객 밀착형 A/S 대응이 있어 가능했다. 이는 아직 국내 영업망을 이처럼 세밀하게 구축하지 못한 다른 로봇 경쟁사들 대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유일로보틱스 보유 고객사 추이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유일로보틱스 산업별 매출 비중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2년 3Q 누적 엔드유저별 매출액 기준



## 2024년 상반기에 신규로 3공장 가동 전망

### 4 향후 Capa. 확대로 규모의 경제 기대

동사는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통해 자동화시스템과 로봇을 제조하고 있다. 3Q22 누적 기준으로 동사 공장 가동률은 약 85%이다. 아래 표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동사의 현재 로봇 생산 Capa.는 105억원/년이다. 동사는 로봇 위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에 신규로 3공장을 가동하려 하고 있다. 3공장은 로봇 전용 공장으로, 이곳의 생산 Capa.는 1,000~2,000억원/년이다.

참고로 로봇 제조 공정의 경우 주로 조립 공정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Capa.는 고객들의 주문 강도와 임직원의 능력/숙련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유일로보틱스 생산 Capa. 현황 및 전망

공장	구분	면적	연 Capa.(단위: 십억원)
	본사(제 1공장)		10.5
	로봇	2,882㎡	12.5
	자동화 시스템 기기		
제 2공장		1,735㎡	-
	로봇		19.0
	자동화 시스템 기기		
제 3공장(신축예정)		26,045.4㎡	100.0~200.0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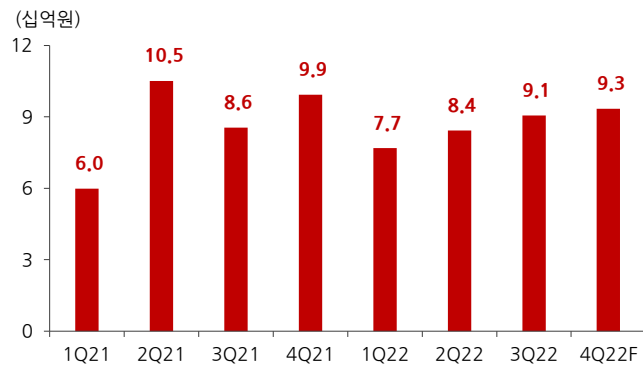
## 실적 추이 및 전망

### 1 경기 침체와 비용증가로 인해 다소 저조한 3분기 누적 실적

3분기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252억원, -1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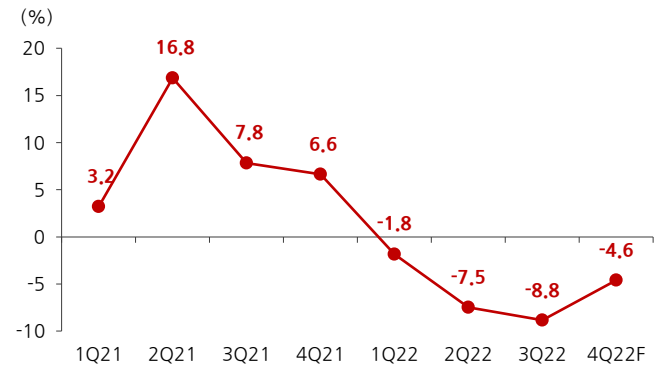
유일로보틱스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52억원, -16억원을 시현했다(각각 전년 동기 대비 +0.4%, 적자전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정체였던 것은 로봇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제조업 전반의 경기 상황으로 인해 자동화시스템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수익성은 악화되어 적자전환 하였는데, 1) 원재료비, 물류비가 상승하고, 2) 경상연구개발비가 로봇 분야 연구개발로 인해 증가하고, 3) IPO 관련해서 임직원 대상으로 상여금(7억원)이 지급된 측면에 기인했다.

연결기준 매출액 분기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영업이익률 분기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2 2022년, 아쉽게도 영업적자는 피하지 못할 전망

2022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345억원, -20억원 전망

유일로보틱스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93억원, -5억원으로 전망한다(각각 전년 동기 대비 -6%, 적자전환). 경기 영향으로 고객사들의 주문이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각종 비용 부담은 소폭 경감되어 전분기 대비 영업적자는 약 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의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45억원, -20억원으로 추정한다(전년 대비 매출액 -1.4%, 영업이익 적자전환). 1) 전반적인 경기 영향으로 자동화시스템이 기대 대비 저조하고, 2) 로봇 매출의 경우 아직 영업력과 Capa. 등에 한계가 있어 실적은 시장 기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정체와 함께 수익성 또한 악화될 전망이다(2021년 영업이익률 9.1% vs 2022년 영업이익률 전망치 -5.8%)  
1) 각종 비용 부담이 상승했고, 2) 아직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만큼 로봇 매출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사의 2022년 실적은 역사적으로도 아쉬운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동사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에도 소폭 흑자 기조 실적(2018년 연간 영업이익 2억원 시현)을 유지할 정도였지만, 코스닥 상장 첫해인 2022년에는 아쉽게도 영업적자로 마감될 예정이다.

### 3 2023년은 도약을 위한 준비

2023년 매출액 +18.8% 성장,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기대

유일로보틱스의 2023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10억원(+18.8% YoY), 8억원(흑자전환 YoY)으로 추정한다. 매출액 성장을 기대하는데 1) 자동화시스템 매출이 회복되고, 2) 협동로봇 위주로 로봇 매출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소폭 흑자전환을 기대한다. 1) 원재료 구입비 등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고, 2) 전년과 달리 특별한 1회성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3년은 2024년 큰 도약을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사는 2024년 상반기에 신축 3공장 가동을 통해 실적의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3공장 토지는 2022년 11월에 구매). 2024년 실적 전망은 동사의 확장될 Capa. 대비는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는데(2024년 매출액 710억원, 영업이익 40억원 전망), 이는 고객들의 주문 강도와 동사의 3공장 가동율/수율 ramp-up 속도에는 향후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동사 제품별 매출 비중은 2022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매출 중 자동화시스템 65%, 로봇 30%, 기타 5% 비중). 다만 로봇 부문 안에서 직교로봇 비중이 50%대로 감소하고 협동로봇, 다관절로봇의 매출 비중이 4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협동로봇 내에서는 특히 푸드테크 로봇의 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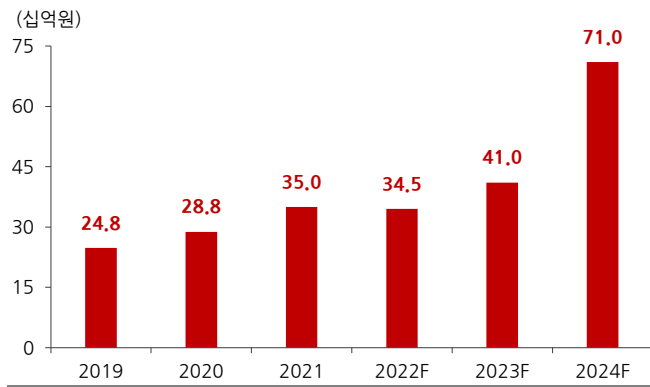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248	288	350	345	410	710
자동화시스템	184	207	250	224	268	297
산업용로봇	51	66	79	103	123	393
기타	13	15	21	18	19	20
영업이익	29	27	32	-20	8	40
지배주주순이익	29	25	39	-8	16	51
YoY 증감률						
매출액	-	16.2	21.5	-1.4	18.8	73.2
영업이익	-	-8.0	18.1	적전	흑전	400.0
지배주주순이익	-	-15.0	55.3	적전	흑전	218.8
영업이익률	11.9	9.4	9.1	-5.8	2.0	5.6
지배주주순이익률	11.8	8.6	11.0	-2.4	3.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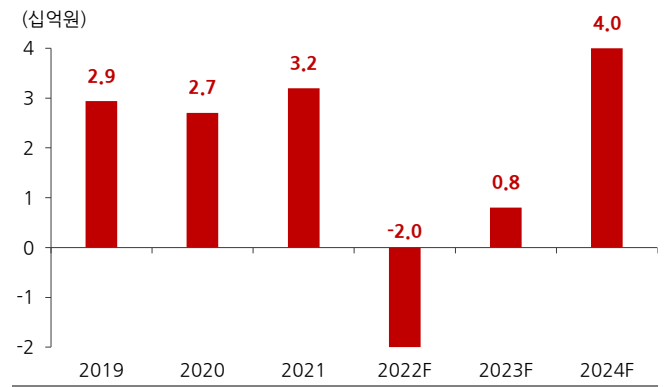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매출액 연간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영업이익 연간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일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밸류에이션은 업종 특성상 고평가 지속 전망. 단, 업종 특성은 고려해야 할 요소

동사는 코스닥 시장 대비  
PER, PBR 모두 고평가이나  
Peer그룹 대비로는  
PER, PBR 모두 저평가

유일로보틱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2,222억원 수준이다. 2023년 실적 추정치 기준 동사의 PER은 138.9배 정도로 (2023년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 16억원 가정), 코스닥 시장(14.2배) 대비 고평가로 관측된다. 동사의 PBR 밸류에이션은 2022년 4.5배, 2023년 5.2배로 코스닥 시장 2.2배, 1.9배 대비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동사의 Peer그룹으로는 티로보틱스, 라온테크, 로보스타,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등 국내 로봇 기업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티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컨센서스가 부재하므로 Peer그룹 선정 고려 제외시켰다.

동사는 Peer그룹과 비교 시에는 PBR 밸류에이션 상 저평가(Peer그룹 평균 PBR 2022년 21.0배, 2023년 21.1배)인 것으로 보인다. PER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평가(Peer그룹 평균 PER 2022년 1,046.9배, 2023년 303.9배)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Peer그룹인 레인보우로보틱스, 뉴로메카는 최근 업종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순수 협동로봇 기업임은 주지해야 한다.

로봇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업종의 성장성, 기대감이 높은 만큼 미래 실적 추정 및 전망에 기반하여 높은 멀티플이 부여되는 시기에 놓여있다. 로봇 기업간 비교도 3~5년 후 각 기업들의 예상 실적과 경쟁력 전망에 대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산정은 상당기간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1) 기대대로 로봇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2) 동사의 매출이 고성장하고, 3) 동사의 수익성이 의미있게 흑자로 전환된다면 동사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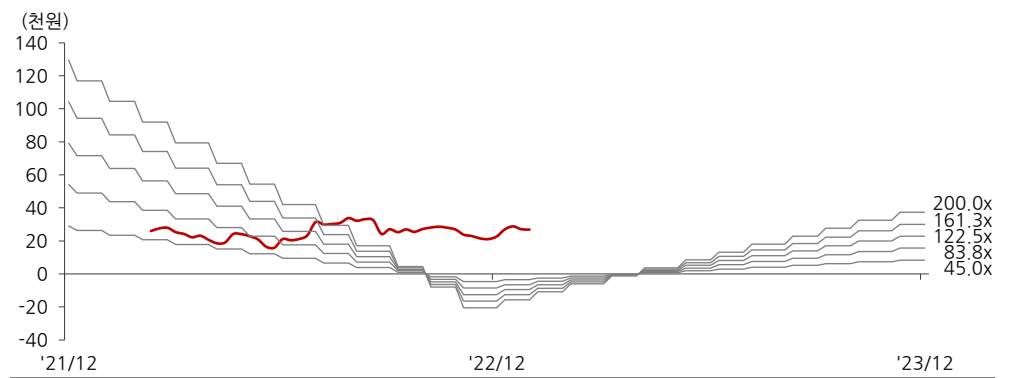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십억원, 배)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PSR			PER			PBR		
			2021	2022F	2023F	2021	2022F	2023F	2021	2022F	2023F	2021	2022F	2023F
코스피	2,438	1,866,204	2,924,624	2,748,678	2,863,208	-	0.6	0.6	-	11.6	13.2	-	1.0	0.9
코스닥	761	355,937	274,267	125,107	149,767	-	1.4	1.2	-	18.6	14.2	-	2.2	1.9
<b>유일로보틱스</b>	<b>25,900</b>	<b>222</b>	<b>35</b>	<b>35</b>	<b>41</b>	<b>-</b>	<b>5.0</b>	<b>5.4</b>	<b>-</b>	<b>-</b>	<b>138.9</b>	<b>-</b>	<b>4.5</b>	<b>5.2</b>
라온테크	10,950	137	37	-	-	5.0	-	-	31.5	-	-	10.0	-	-
레인보우로보틱스	75,800	1,439	9	14	21	48.3	90.4	68.5	-	1,046.9	435.7	9.4	26.1	27.6
뉴로메카	21,650	224	7	13	21	-	15.0	10.9	-	-	172.1	-	15.9	14.5
<b>동종업종 평균</b>	-	-	-	-	-	<b>26.6</b>	<b>52.7</b>	<b>39.7</b>	<b>31.5</b>	<b>1,046.9</b>	<b>303.9</b>	<b>6.5</b>	<b>21.0</b>	<b>21.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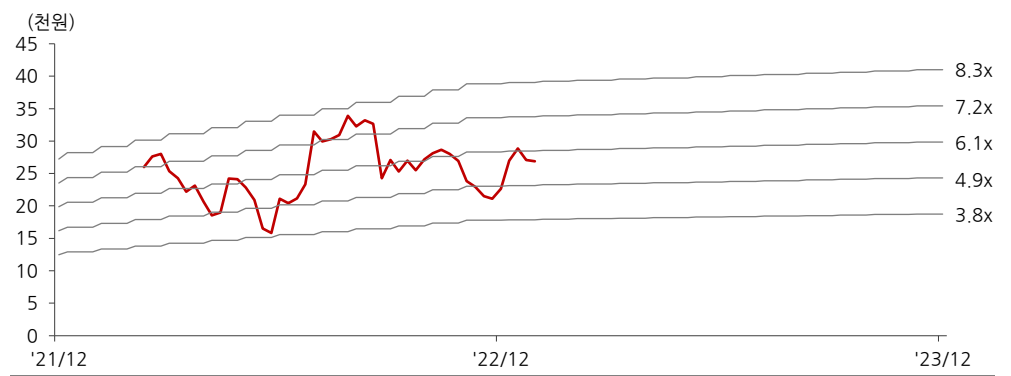
주: 2023년 2월 6일 종가기준, 2022년, 2023년 비교 기업의 실적 추정은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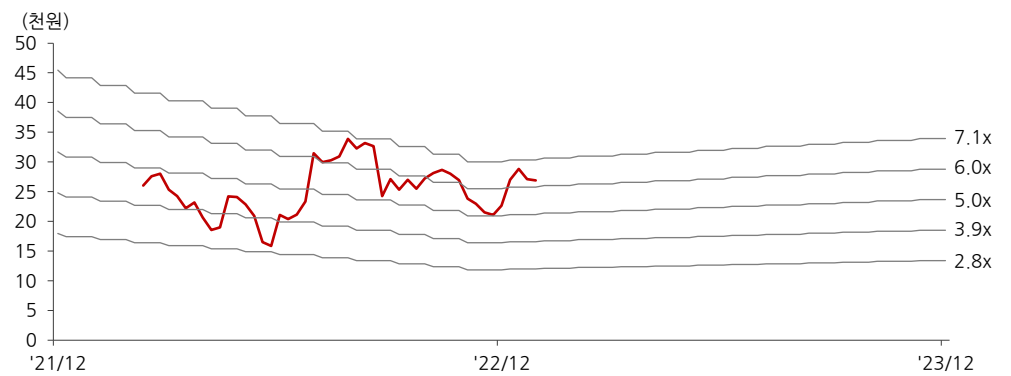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S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원/부자재 가격, 원/달러 상황을 주시. 동사는 당분간 성장 위해 비용 지출 불가피**

**원/부자재 가격,  
환율은 큰 변수**

원/부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은 동사 손익의 큰 변수이다. 동사는 로봇 내 각종 부품인 감속기, 모터류를 일본, 독일 업체들에서부터 매입해서 쓰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손익은 글로벌 물가와 원/달러 환율 상황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참고로 동사는 원/달러 환율이 강세(원화 강세)일수록, 글로벌 물가가 억제될수록 손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단기적으로는 동사에 대해  
손익 기대감을 낮춰야**

동사는 IPO 이후 신사업인 로봇 사업에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비용을 점차 늘려나갈 전망이다. 동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로봇, 특히 협동로봇 분야이기 때문이다. 단기 손익 위주 관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는 동사와 같은 기업에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사는 미래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경상연구 개발비, 각종 판관비를 당분간 늘려서 지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임을 투자자들은 주지해야 한다. 로봇이라는 블루오션 시장 선점을 위해 로봇 기업들의 투자 및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동사에 대해 손익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F	2023F	2024F
<b>매출액</b>	288	350	345	410	710
증가율(%)	16.2	21.5	-1.4	18.8	73.2
<b>매출원가</b>	207	252	272	305	570
매출원가율(%)	71.9	72.0	78.8	74.4	80.3
<b>매출총이익</b>	81	98	73	105	140
매출이익률(%)	28.1	28.0	21.2	25.6	19.7
<b>판매관리비</b>	54	66	93	97	100
판매비율(%)	18.8	18.9	27.0	23.7	14.1
<b>EBITDA</b>	30	37	-5	25	58
EBITDA 이익률(%)	10.6	10.4	-1.3	6.1	8.2
증가율(%)	-5.5	20.1	적전	흑전	131.8
<b>영업이익</b>	27	32	-20	8	40
영업이익률(%)	9.4	9.1	-5.8	2.0	5.6
증가율(%)	-8.0	18.1	적전	흑전	400.0
<b>영업외손익</b>	-2	8	13	9	12
금융수익	2	8	10	10	15
금융비용	6	4	4	6	8
기타영업외손익	2	4	7	5	5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b>세전계속사업이익</b>	25	40	-7	17	52
증가율(%)	-12.9	59.7	적전	흑전	205.9
법인세비용	0	1	1	1	1
계속사업이익	25	39	-8	16	5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b>당기순이익</b>	25	39	-8	16	51
당기순이익률(%)	8.6	11.0	-2.4	3.9	7.2
증가율(%)	-15.0	55.3	적전	흑전	218.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5	39	-8	16	51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F	2023F	2024F
<b>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10	18	-35	3	-63
당기순이익	25	39	-8	16	51
유형자산 상각비	3	4	12	15	17
무형자산 상각비	1	1	3	2	2
외환손익	2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6	-30	-41	-28	-131
기타	5	4	-1	-2	-2
<b>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25	-80	-115	-29	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	1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26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	-72	-10	-20	-20
기타	0	-9	-105	-9	21
<b>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8	82	172	13	27
차입금의 증가(감소)	-20	32	-40	0	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212	13	25
배당금	0	0	0	0	0
기타	28	50	0	0	0
<b>기타현금흐름</b>	-0	-0	0	0	0
<b>현금의증가(감소)</b>	23	20	22	-13	-35
기초현금	3	26	46	68	55
기말현금	26	46	68	55	20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F	2023F	2024F
<b>유동자산</b>	168	220	428	472	632
현금성자산	26	46	68	55	20
단기투자자산	6	7	114	125	105
매출채권	91	72	130	154	268
재고자산	33	68	90	107	185
기타유동자산	13	26	26	31	53
<b>비유동자산</b>	82	161	156	158	160
유형자산	68	139	136	141	145
무형자산	3	11	8	6	4
투자자산	1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10	11	12	11	11
<b>자산총계</b>	251	381	583	631	792
<b>유동부채</b>	80	123	162	179	259
단기차입금	2	0	0	0	0
매입채무	21	6	46	55	95
기타유동부채	57	117	116	124	164
<b>비유동부채</b>	83	49	9	10	1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76	4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	9	9	10	15
<b>부채총계</b>	163	172	171	189	274
지배주주지분	87	209	402	424	500
자본금	25	32	32	32	32
자본잉여금	0	78	279	285	310
자본조정 등	-20	-20	-20	-20	-2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3	-3	-3	-3
이익잉여금	83	122	114	130	181
<b>자본총계</b>	87	209	402	424	500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F	2023F	2024F
P/E(배)	0.0	0.0	N/A	138.9	43.6
P/B(배)	0.0	0.0	4.5	5.2	4.4
P/S(배)	0.0	0.0	5.0	5.4	3.1
EV/EBITDA(배)	2.7	1.7	N/A	88.5	38.0
배당수익률(%)	N/A	N/A	0.0	0.0	0.0
EPS(원)	459	647	-102	186	594
BPS(원)	1,561	3,282	4,680	4,937	5,822
SPS(원)	5,329	5,872	4,227	4,778	8,274
DPS(원)	0	0	0	0	0
<b>수익성(%)</b>					
ROE	33.2	26.0	-2.7	3.9	11.0
ROA	10.9	12.2	-1.7	2.6	7.2
ROIC	17.1	14.6	-8.2	2.4	9.7
<b>안정성(%)</b>					
유동비율	210.0	178.9	264.3	263.5	243.7
부채비율	186.7	82.1	42.5	44.6	54.9
순차입금비율	93.4	29.5	1.9	-0.5	-2.0
이자보상배율	7.4	8.7	-6.6	3.3	16.4
<b>활동성(%)</b>					
총자산회전율	1.3	1.1	0.7	0.7	1.0
매출채권회전율	3.8	4.3	3.4	2.9	3.4
재고자산회전율	10.3	6.9	4.4	4.2	4.9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